

충남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설립방향

김진기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jk030423@cni.re.kr

송영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pm1032song@uos.sc.kr

이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지는 중요성을 탐구하고, 충남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충남의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과제의 배경과 목적
2. 신남방정책과 인도네시아의 중요성
3. 충남 對(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4. 충남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설립 방향

요약

- 최근 신남방정책 대상국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부,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조응하여 현지 사무소 개소를 검토 중
- 이에 사무소 개소에 앞서,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충남과의 협력현황을 살펴보고, 충남의 전략시장으로서 인도네시아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
- 인도네시아는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도 크나, 해외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제도적인 장벽이 높은 편이며 현재 충남과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은 편
-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관세장벽이 낮아지거나 철폐된 부문에서의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됨
- 따라서, 1)프로젝트 또는 준위탁사무소형 인도네시아 사무소 설립, 2)타 지방정부와 공동사무소 설립, 3)코트라 원루프 시스템 활용 등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01

과제의 배경과 목적

- 충남도는 2020년 인도, 베트남에 현지 해외사무소를 개소하고, 충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중
 - 중국 중심이었던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신남방정책 등에 기인
- 최근 신남방정책 대상국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부,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조응하는 중
 - 2020년 이후 LG를 비롯한 국내외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관업종의 중소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충남도 역시 2020년 이후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KOTRA와의 협업, 통상사무소 개소 등 방안을 제시
 - 특히 2021년 이후 인도네시아에 해외사무소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
- 인도네시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측면의 불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분명 경제적인 잠재력이 큰 시장이나, 제도적 불안정성,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력, 소비재 시장과 구매력 등에 있어서 문제 존재
 - 또한 이미 2개의 신남방정책 대상국에 대한 해외사무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신남방정책 대상국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존재

- 한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2012.3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2019.11.25. 공식타결을 거쳐 2020.12.18. 정식서명 함
 -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안 통과 절차를 남겨둠

[표 1]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경과

2011.5	한-인도네시아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12.3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시 선언
2012.7	제1차 협상 개최 (자카르타)
2014.2	제7차 협상 개최 (서울)
2019.2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재개 선언
2019.10.16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2019.11.25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
2020.12.18	한-인도네시아 CEPA 정식 서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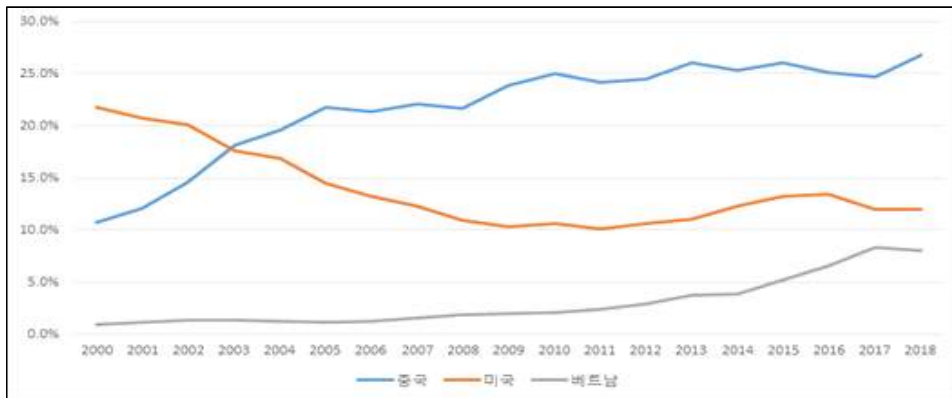
- 상기 배경에서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추진 현황과 정책 거점으로서 인도네시아가 가지는 중요성을 검토하고,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적절한 형태의 충남의 인도네시아 사무소 건설 방향을 제안

1. 신남방정책의 추진 배경

-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2017년 11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용어와 내용을 천명
 -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의 3P 개념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
 - 동남아시아 10개국 공동체를 의미하는 ASEAN과 인도를 포함한 11개국¹⁾과의 협력수준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력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수준으로 격상할 계획
- 한편, 2010년대 이후 중국이 경제구조 고도화와 수입대체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기존 한중일 분업구조가 와해되게 되었고(홍원표·송영현, 2019), 기존 중국의 역할 대체를 위해 한-아세안의 산업분업과 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
 - 2013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정체하는 가운데 베트남과의 수출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아세안 분업구조의 형성이 가시화
 - 상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다수 기업이 베트남 외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역시 추진²⁾

1) 아세안(ASEAN)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으로 구성

2) 일례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자동차를 건설 중이며, 2021년 5월부터 시제품 생산에 착수할 계획(아시아 타임즈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5월부터 시제품 생산', 2021.03.26.)



〔그림 1〕 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 변화 추이(2000-2018)

출처: 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신현수, iKIET 산업경제이슈(2019.5.13), 산업연구원

- 한편 신남방정책은 경제 목표 외에도,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 무대를 육성한다는 의의도 포함
 - 국제교류협력의 경향이 국방과 안보 중심의 하드 파워에서 문화, 정책, 지식 등의 소프트 파워를 중시하는 新공공외교로 진화
 - 우리 정부는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2)>을 통해 문화, 지식, 정책 등의 교류를 개발도상국과 실시하고 해당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 표명
 - 아세안과 인도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국가 및 지역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성공 모델과 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

대구 물산업 기업 키운다, 권영진 중국과 인도네시아 진출도 바라봐

조은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 2021-03-18 16:11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물산업에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에 애쓰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데다 중국·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물관리 실패와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권 시장의 행보에 시선이 모인다.

권 시장은 18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는 달성군에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물산업 진출과 연구개발, 기술인력,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권영진 시장, 민경석 한국물기술진흥원장, 서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 본부장,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정상용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최인중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

뉴스 Who Is?

정동규 HDC 대표이사 겸 HDC그룹 회장
의류내강형으로 승부욕 강해, 축구 포함 다양한 활동 펼쳐 [2021년]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공화면서도 사업추진 과감해, 스포츠 내성 강해 [2021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스타일, 개입보다 시장원리 존중 [2021년]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부회장
셀트리온 창업공신,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능력 뛰어나 [2021년]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비서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 폭목히 업무

〔그림 2〕 대구-인도네시아 정책 교류 기사

출처: 비즈니스 포스트, '대구 물산업 키운다, 권영진 중국과 인도네시아 진출도 바라봐', 2021.03.18.)

2.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

-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신남방정책위원회가 2018년 구성된 바 있으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모토로 사람공동체, 상생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의 3가지 영역에서 16개의 과제를 추진 중
 - (사람 공동체)관광객 확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신남방 지역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공행정 역량 증진 등의 6개 과제 제시
 - (상생번영 공동체)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 참여,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 활동 지원 등 5개 과제 제시
 - (평화 공동체)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포괄적 국방·방산 협력 등 5개 과제 제시

01 사람 공동체 People	02 상생번영 공동체 Prosperity	03 평화 공동체 Peace
<p>01.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 지역 국가로 다변화하여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p> <p>02. 신남방지역과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문화교류 거점 확충 및 문화 ODA 사업, 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등 환아세안 인식 개선 등 추진</p> <p>03.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 장학생 지원 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등을 통한 학생교류 및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등 추진</p> <p>04.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 공공행정 경험 공유에 대한 신남방 지역의 지속적인 협력수요 충족 및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가치 증진</p> <p>05.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신남방 지역 노동자의 한국내 조기직을 및 귀국 후 재정착 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여성·아동 지원</p> <p>06.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 빈곤퇴치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세마을 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및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p>	<p>0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아세안 역내 추진중인 지역 및 다자·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p> <p>08.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 진출 지원</p> <p>09.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물(K-Food, 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p> <p>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인 4차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p> <p>11.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각 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p>	<p>12. 신남방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마다 인도의 상호 정상 방문,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p> <p>13.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미북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지원 확대</p> <p>14.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 한·아세안 국방 협력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 간 고위급 교류 확대, 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 추진</p> <p>15.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안보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p> <p>16.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본쟁,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 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 지역 복원력(resilience) 향상 지원</p>

(그림 3) 신남방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출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nsp.go.kr/main.do>)

- 또한 2020년 12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코로나19를 대표로 하는 국제환경의 변화, 신남방국가의 다양한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
 - 코로나19와 관련성이 깊은 보건의료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 개발, 문화 교류,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5G 등),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발표

3. 신남방정책 새로운 거점, 인도네시아의 중요성

- 그간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으로 베트남, 인도가 많이 알려져 왔으나, 최근 인도네시아 역시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
 -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 세계 4위(2020년 기준 약 2억 6천만명)를 가지고 있으며, 2013-19년 기간 GDP 성장률은 연평균 5% 수준으로 높은 편
 -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에 따르면, 소비지출규모(2018년 기준 815억 6천만달러)도 우리나라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편
 - 1인당 소비지출 규모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최근 매년 5% 수준의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 가능성 존재
 - 상기 맥락에서 최근 베트남·인도와 더불어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거점 국가로서 인도네시아가 주목받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수요가 가장 많다고 설명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를 개소
- 최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협력을 구체화
 - 2021년 2월 8일 우리나라 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팀코리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의 인프라 및 재원 투자에 참여
 - 또한 2020년 10월 무역협회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2020년 신남방정책 비즈니스

스 워크>를 개최한 바 있는데, 포럼과 수출상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인도네시아를 가장 주목

-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2021년 전경련의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 등 다양한 관련 국제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
- 2020년 우리나라의 LG전자가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도네시아와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현지에서 산업가치사슬(industrial value chain)을 구축할 계획
- 대기업의 인도네시아 이전과 산업협력 분위기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국내의 하청 및 관련기업들의 인도네시아와의 산업연계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 밖에 미국 태양광 기업 Alpan Lighting, 일본 덴소 파나소닉, 대만 Meiloon 등도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예정

●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도모하는 활동도 발생 중

- 대구·경북의 경우 2019년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동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 및 온라인 형태의 협력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 및 현지 시장 진출을 도모
- 경남의 경우 비교적 이른 201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으며, 2021년 현재까지 경남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 실시 중
- 2020년 4월에는 대구, 경북, 경남이 공동으로 기업은행 인도네시아법인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및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형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
- 대구 및 경북 공동사무소의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해외사무소를 설립, 운영함에 따라 수반되는 운영비용을 저감시키고 사무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협력의 구체화를 위해, 2019년 공동업무 추진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무소 운영, 수출상담회, 관광설명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 중
- 경남 역시 개별 사업에 있어서는 대구, 경북과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

Intro ▾

인도네시아 개요 ▾

한국과 인도네시아 ▾

수출입 정보 ▾

투자기업 정보 ▾

생활정보 ▾

Q&A

코트라 시장정보

인도네시아 소식

한인 단체/기관 소식

상담, 전시회 일정

주요정보 바로가기

인증제도

물류

인스타그램

주재관 시장 정보

인도네시아

농식품수출 PROCESS

[그림 4] 대구-경북 자카르타 사무소 홈페이지

출처: 대구-경북 자카르타 사무소 홈페이지(<http://www.goindonesia.net/gb/>)

03

충남의 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과 과제

1.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 및 특징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가로 경제적인 잠재력 큰 편

- 2020년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약 2억 6,750만 명을 보유
- 2019년 명목 GDP는 1조 1,19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10개국 총 GDP의 35.2%를 차지
- 경제성장 속도 또한 빨라 2010년-2012년 6%의 고성장을 지속하다가 2013년 이후 성장세 5%대로 둔화, 2019년까지 5%대 성장률 유지³⁾

〔표 2〕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9년	2020년(추정치)*
인구	백만 명	265.3	267.5
명목 GDP	십억 달러	1,119.1	1,080.6
1인당 명목 GDP	달러	4,282.2	4,039.6
경제성장률	%	5.0	-2.2
실업률	%	5.3	7.5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1.9
GDP 대비 재정수지	%	-1.6	-7.1
달러대비 환율(연평균)	루피아/US\$	14,249	14,827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82.1	279

주: 2020년 추정치는 EIU의 추정치 발표를 활용

출처: KOTRA(2021)

3) 2015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침체 등 수출 부진 원인으로 4%대 성장률에 그쳤으나, 이는 일시적인 부진으로 2016년 이후 5%대 성장률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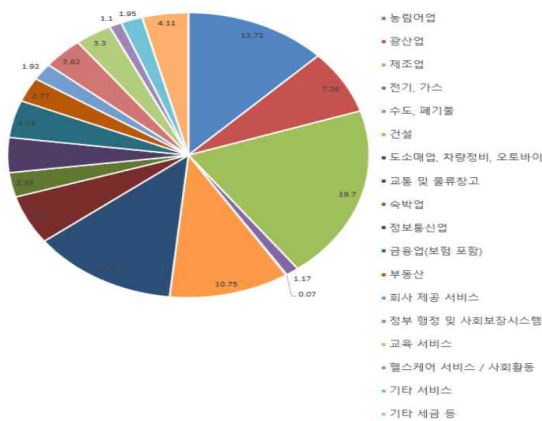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발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사회적 제약(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PSBB)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
-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행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재택근무, 재택교육 등의 정책 실시
- 이에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2020년 인도네시아 GDP를 약 1조 800억 달러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2% 줄어든 수치
- 또한 재무부의 스리 물라니(Sri Mulyani) 장관은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1.7%에서 -0.6% 사이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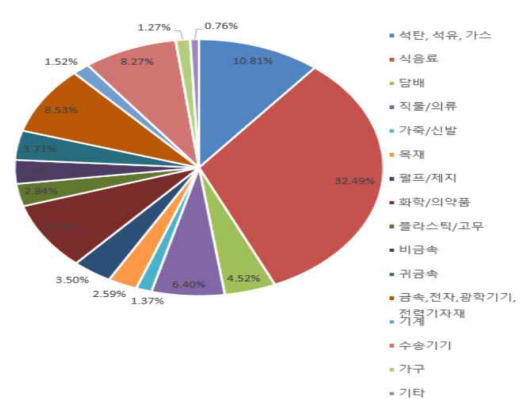
● 금융시장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은 큰 상황

- 2020년 1-4월 간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자본 유출은 159조 6,000억 루피아에 달했으며, 미국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 가치 하락도 발생
- 2020년 달러 대 루피아 평균 환율은 미달러당 14,827 루피아로 2019년 대비 약세
- 기준 금리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5차례 하향 조정을 실시해 2016년 이후 최저치인 3.75% 수준을 기록

2019년 인도네시아 전체 산업별 GDP비중



2019년 인도네시아 제조업 내 산업비중



〔그림 5〕 2019년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비중

출처: KOTRA(2021)

-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서비스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및 산업 전반의 성장이 부진
 - 2019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19.7%로 가장 높았으며, 이 중 식음료(32.5%), 석탄·석유·가스(10.8%), 수송기기(8.3%), 금속·전자·광학기기(8.5%) 등 산업 비중 높은 편
 - 2020년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제약정책의 시행으로 관광 및 산업서비스 부문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그림 6) 최근 인도네시아 대외 무역량 추이(2014-2020년)

출처: KOTRA(2021) 자료 정리

- 인도네시아는 최근 대외 환경의 악화로 교역규모 및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
 - 인도네시아는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을 겪으며 교역규모가 감소한데 이어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입이 크게 위축
 - 또한 FDI 총액도 2019년 282억 달러로 2018년(-9.1%)에 이어 2년 연속 감소(-3.7%)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135억 8천만 달러 수준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4.3% 하락하여 감소세 유지

[표 3]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및 FDI 상위 10개국(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FDI		
	국가	2019년	2020년 (7월)	국가	2019년	2020년 (7월)	국가	2019년	2020년 (상반기)
1	중국	27,877	16,503	중국	44,895	21,581	싱가포르	6,510	4,673
2	미국	17,647	10,201	싱가포르	17,096	7,340	일본	4,311	1,213
3	일본	15,928	7,838	일본	15,609	6,784	중국	4,745	2,427
4	싱가포르	12,929	6,529	미국	9,249	4,939	홍콩	2,891	1,797
5	인도	11,774	5,549	태국	9,462	4,131	말레이시아	2,597	796
6	말레이시아	8,942	4,218	한국	8,416	3,929	네덜란드	1,358	503
7	한국	7,210	3,770	말레이시아	7,725	3,559	한국	1,070	683
8	필리핀	6,758	3,073	호주	5,515	2,694	미국	989	201
9	태국	6,213	2,851	인도	4,295	2,101	버진아일랜드	744	218
10	베트남	5,150	2,511	대만	3,650	2,051	영국	142	83
	총액	167,003	90,090	총액	170,388	81,421	총액	28,210	13,580

출처: KOTRA(2021) 자료 정리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국이지만, 최근 통상교류가 감소하는 추세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7위 수출국(2019년 기준 약 72억 1천만 달러)이자 6위 수입국(동년 기준 약 84억 1,600만 달러)이지만, 2018년 이후 교역규모가 2년 연속으로 감소
 - 또한 2019년 인도네시아에 FDI 규모 약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7위의 투자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약 20억 달러, 5위)과 2018년(약 16억 달러, 6위)보다 규모·순위에서 모두 하락

2. 충남-인도네시아 간 교역추이 변화 및 특징

- 충남의 교역대상국 중 인도네시아는 교역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크지 않으며, 충남과 교역을 진행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4번째
 - 2020년 기준 충남은 인도네시아와 무역총액 약 10억 2,900만 달러 규모를 기록
 - 이는 충남의 교역대상국 중 16번째로 높은 교역규모이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2위), 싱가포르(13위), 말레이시아(15위)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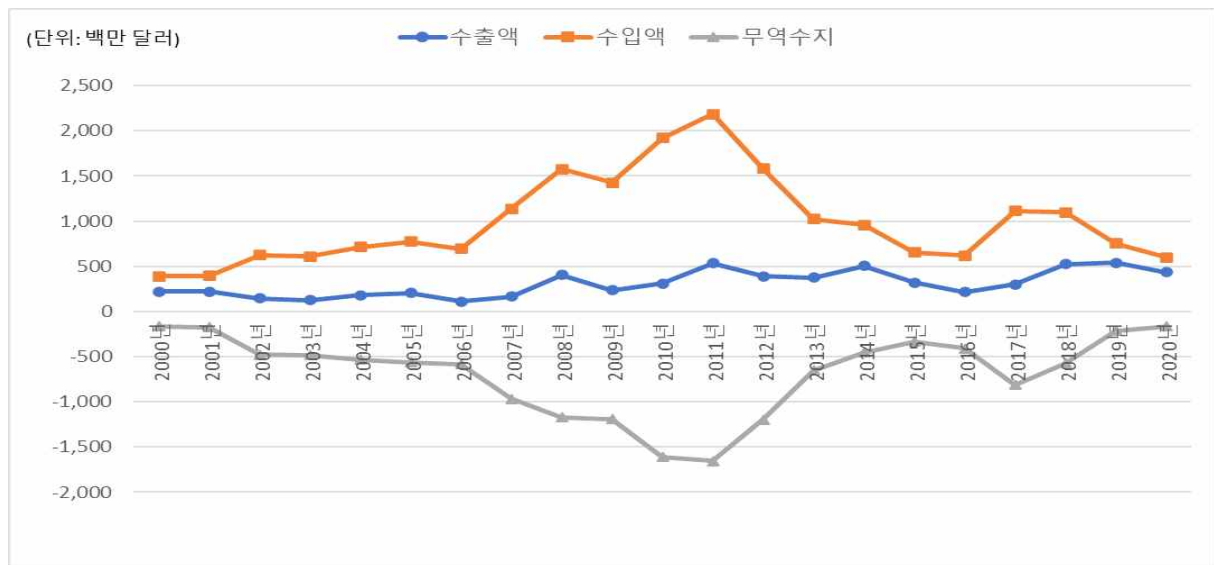
〔표 4〕 2020년 충청남도 주요 국가별 교역액 및 비중(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출		수입		수출입	
		총액	비중	총액	비중	총액	비중
1	중국	22,418	28.2%	3,713	14.0%	26,131	24.6%
2	베트남	15,847	19.9%	350	1.3%	16,197	15.3%
3	홍콩	13,479	16.9%	18	0.1%	13,497	12.7%
4	미국	7,915	9.9%	2,857	10.8%	10,772	10.2%
5	대만	4,213	5.3%	346	1.3%	4,559	4.3%
6	일본	2,035	2.6%	2,406	9.1%	4,441	4.2%
7	멕시코	981	1.2%	2,152	8.1%	3,133	3.0%
8	러시아	372	0.5%	2,049	7.7%	2,421	2.3%
9	카타르	4	0.0%	2,003	7.6%	2,007	1.9%
10	사우디아라비아	237	0.3%	1,720	6.5%	1,957	1.8%
11	호주	425	0.5%	1,526	5.8%	1,951	1.8%
12	인도	1,433	1.8%	130	0.5%	1,563	1.5%
13	싱가포르	1,077	1.4%	413	1.6%	1,490	1.4%
14	브라질	815	1.0%	631	2.4%	1,446	1.4%
15	말레이시아	962	1.2%	388	1.5%	1,350	1.3%
16	인도네시아	432	0.5%	597	2.3%	1,029	1.0%
17	필리핀	812	1.0%	59	0.2%	871	0.8%
18	독일	362	0.5%	502	1.9%	864	0.8%
19	쿠웨이트	16	0.0%	643	2.4%	659	0.6%
20	폴란드	394	0.5%	194	0.7%	588	0.6%
계		79,572	100%	26,447	100%	106,019	100%

출처 :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 정리

- 충남의 교역대상국은 여전히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에 주로 집중
 - 충남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수출입 총액 기준 중국(24.6%), 베트남(15.3%), 홍콩(12.7%), 미국(10.2%), 대만(4.3%), 일본(4.2%) 순서로 나타나며, 특히 중국과 베트남으로 집중
 - 특히 베트남은 수출 부분의 비중이 더욱 높아 충남 전체 수출액의 약 20%가 베트남으로 집중되는 상황

- 인도네시아는 수출입 총액 기준 교역대상국 중 1%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수출의 비중은 0.5% 수준
- 충남과 인도네시아와의 교역구조는 수출보다는 수입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對 동남아시아 지역 교역액 중 베트남과의 수출입 총액이 무려 75.1%가 집중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 교역액 중 약 4.8%를 차지
- 그 밖에 싱가포르(6.9%), 말레이시아(6.3%), 필리핀(4.0%) 순서로 교역액 많은 편



〔그림 7〕 충청남도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입 금액 추이(2000-2020년)

출처 :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 정리

- 충남과 인도네시아의 교역규모는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하락세이며, 특히 최근 2년은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
 - 2020년 충청남도-인도네시아의 교역액 규모는 약 10억 달러 규모로 2019년부터 2년 연속 20% 가량 감소
 - 이 중 수출은 4억 3,2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20.2% 감소했으며, 수입도 약 5억 9,7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20.8% 감소
 - 양국의 교역규모는 2017년 최대치인 27억 1,900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빠르게 감소하다가

2017년과 2018년 잠깐 반등하는 듯 했으나 2019년과 2020년 각각 20.1%와 20.5% 감소

- 이는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크게 줄어 충남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액이 31.3% 감소한데 기인하며,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입과 수출이 모두 감소

- 충남은 인도네시아와의 순수입국으로서, 2000년이래로 2020년까지 꾸준히 무역적자를 기록
 - 2020년 충남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을 통해 1억 6,5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폭은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 코로나19 및 국제 환경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
 - 충남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순수출국은 중국, 베트남, 홍콩, 미국, 대만 등 전통적으로 통상관계 구축이 잘 된 지역인 반면, 순수입국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로 원자재 수입과 관련된 국가들로 구성

3. 인도네시아의 대외경제협력 여건 및 전망

- 세계은행에서 2021년 2월에 발표한 <2020 기업환경 평가보고서(doin business report 202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종합 점수 69.6점으로 순위 73위를 차지
 -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싱가포르(2위), 말레이시아(12위), 태국(21위), 브루나이(66위), 베트남(70위)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순위이나,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
 - 하위 그룹에는 필리핀(95위), 캄보디아(144위), 라오스(154위), 미얀마(165위) 등이 위치

[표 5] 2020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기업환경 평가

구분	2020년 순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종합순위	2	12	21	66	70	73	95	144	154	165
종합점수	86.2	81.5	80.1	70.1	69.8	69.6	62.8	53.8	50.8	46.8
1. 창업	4	126	47	16	115	140	171	187	181	70
2. 건축 인허가	5	2	34	54	25	110	85	178	99	46
3. 전기공급	19	4	6	31	27	33	32	146	144	148
4. 재산권 등록	21	33	67	144	64	106	120	129	88	125
5. 자금조달	37	37	48	1	25	48	132	25	80	181
6. 소액투자자보호	3	2	3	128	97	37	72	128	179	176
7. 세금납부	7	80	68	90	109	81	95	138	157	129
8. 통관행정	47	49	62	149	104	116	113	118	78	168
9. 계약 이행	1	35	37	66	68	139	152	182	161	187
10. 부실 해결	27	40	24	59	122	38	65	82	168	164

출처 : worldbank(2021a)

● 인도네시아는 소규모 투자 부문에서는 비교적 환경이 양호하나, 시장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고 민간 투자 부문에서는 여건의 개선이 필요

- 2020 기업환경 평가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전기공급(33위), 소액투자자 보호(37위), 부실해결(38위) 등 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창업(140위), 계약 이행(139위), 통관행정(116), 건축인허가(110위), 재산권등록(106위) 등 부문에서는 전체 190개 대상국가 중 낮은 수준으로 평가
- 또한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 기업 견제와 사업 허가 규제 및 높은 인건비 상승률, 자국산 제품 의무사용 등 진입 장벽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
-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은 산업 부문에 따라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할랄(HALAL) 인증 등 복잡한 인증 절차가 필요해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



[그림 8] 2020년 인도네시아 기업환경 평가 현황 요약

출처 : worldbank(2021b)

- 향후 중남과 인도네시아의 통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안정, 제도개혁,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경제발전 전략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정치 여건에서는 2019년 출범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2기 정부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
 - 국제적으로는 코로나19의 공동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긴밀한 관계 형성을 바라는 상황
 - 경제적 여건은 코로나19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방역 시스템의 개선, 주요국들과의 협력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IMF(6.1%), World Bank(3.0~4.4%), ADB(5.3%) 등의 국제기구와 EIU(4.3%), 인도네시아 정부(4.5~5.5%)에서 각각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

[표 6] 주요 기관별 2020-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국제기구			경제연구소	인도네시아 정부
	IMF	World Bank	ADB	EIU	재무부
2020년	-0.3%	-2.0 - -1.6%	-1.0%	-2.2%	-1.7 - -0.6%
2021년	6.1%	3.0 - 4.4%	5.3%	4.3%	4.5 - 5.5%

출처 : KOTRA(2021) 자료 재인용(2020년 10월 전망치)

- 정책 및 규제 환경의 개선 여건으로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수출 중심의 GVC 재편 의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중기발전계획(RPJMN 2020~2024)에 따른 인프라 구축, 2019~2024 샤리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한 할랄 산업 중점 육성 계획, 외자유치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한 옴니버스법 개정 등을 주목할 필요

[표 7] 인도네시아와의 국제협력을 위한 제반여건 검토

정책명	주요 내용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음료 ▲섬유 및 봉제 ▲자동차(전기차) ▲화학 ▲전자 등 5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 진입을 목표 - 자국 유망 제조업 산업의 혁신을 통해 수입 비중을 낮추고, 수출 비중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역내 GVC 재편에 참가할 계획
인도네시아 중기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중기발전계획을 통해 ▲기초인프라 ▲경제인프라 ▲도시인프라 ▲에너지 및 전기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
2019~2024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2019년 5월 2019~2024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MEKSI 2019~2024)을 발표 -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2024년까지 글로벌 할랄 산업 국가로 육성할 계획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생산 및 서비스 증대에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0월 5일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이 국회를 통과, 11월 2일 대통령 최종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포 - 옴니버스법은 사업허가제도, 투자, 근로, 토지, 경제특구, 영세 및 중소기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 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외자유치와 외국기업들의 유연한 일자리 공급 내용을 주목할 필요

출처 : KOTRA(2021) 참고 재정리

4. 한-인도네시아의 CEPA체결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국제협력 강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창출 모색

- 지난해 12월 한-인도네시아 CEPA협상 서명에 따른 한-인도네시아 간 통상 협력 강화 기대
- 우리나라는 수입품목(95.5%), 수입액(97.3%)에 대해 관세 철폐,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93%), 수입액(9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이외에도 서비스 시장 접근 개선, 자율화 규범 도입, 인적 교류 확대 등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높은 수준의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표 8]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개방 내역

한국 시장 개방	인도네시아 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양파, 고추, 마늘, 양파, 녹차, 사과, 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측 주요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합성수지,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며, 일부 주력 품목은 협정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측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기 체결 자유 무역협정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측 민감성이 높지 않은 품목인 경유, 벙커씨유, 정밀화학원료, 맥주 등은 이익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측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섬유, 기계부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수 관세 즉시 철폐로 시장 개방

출처 : KOTRA(2021) 참고 재정리

- 2021년 2월 8일 우리나라 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팀코리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의 인프라 및 자원 투자에 참여
- 팀코리아 참여 기관은 국내 및 인도네시아 주재 26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

[표 9]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 양허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양허 유형	한국양허				인도네시아 양허			
	품목수	비중	對인도네시아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기준세율이 0%인 경우	11,036	90.2	8,112	90.0	8,669	80.2	7,984	88.8
즉시 철폐	231	1.9	134	1.5	670	6.2	145	1.6
3년	93	0.8	207	2.3	28	0.3	20	0.2
5년	50	0.4	10	0.1	69	0.6	6	0.1
7년	10	0.1	0	0.0	86	0.8	59	0.7
10년	231	1.9	76	0.9	309	2.9	138	1.5
15년	20	0.2	3	0.0	105	1.0	57	0.6
20년	16	0.1	2	0.0	18	0.2	0	0.0
소계	651	5.3	432	4.9	1,285	11.9	425	4.7
총합계	11,687	95.5	8,544	96.9	9,954	92.1	8,409	93.5
양허제외 · 동결	545	4.5	276	3.1	859	7.9	580	6.5
전체	12,232	100.0	8,820	100.0	10,813	100.0	8,989	100.0

주1: 품목수는 HS2019(한국은 10단위, 인도네시아는 8단위), 수입액은 2019년 對상대국 기준

주2: 소계는 기준세율 0% 품목을 제외한 한-인도네시아 CEPAP 양허대상 품목수와 수입금액의 합 표시

주3: 기준세율은 2018년 1월 1일에 유효한 MFN 실행세율과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중 낮은 것을 의미

주4: 한국 양허의 경우 일부 “기준관세율의 25%가 10년 내 인하”포함 (수입금액 1.8백만달러 상당)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K-star)

- 기준 한-아세안 FTA 상품 양허와 비교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품목수 기준 각각 5.3%p(90.2%→95.5%), 11.9%(80.2%→92.1%), 2019년 수입액 기준 각각 4.9%p(90.2%→96.9%), 4.7%p(88.8%→93.5%)에 대한 추가 관세철폐를 합의하였음 [표9]

－ 주요 농·수·임산물에 대해 양허 제외로 보호하고 일부 채소·과일류, 조제식료품 등은 15-20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예정

- 인도네시아는 최근 개인 소득상승으로 식음료 및 포장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2017년 기준 약 130억 달러 추정)
 - 인도네시아의 건설 및 자동차산업수요 역시 성장함에 따라 2018년 기준 철강재 소비 규모는 1,510만 톤에서 2024년 2,270만 톤으로 50.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중산층의 구매력확대로 자동차 시장 역시 확대 예상

- 인도네시아가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증가에 따른 충남의 인도네시아 수출증대가 예상 되는 부문은 플라스틱·고무류 제품이며 2020년 기준 수출액은 9,733천 달러임 [표 10]
 - 한편 충남도가 전 세계(인도네시아 포함)로 수출하는 플라스틱·고무류 일부품목(HS코드 39013000, 39204900)의 경우 해당품목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충남은 각각 49% 및 17%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 11]
 - 그간 유지되던 해당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5% 수입관세가 즉각 철폐됨에 따라 해당품목의 對인도네시아 수출도 확대 예상됨
 - 아울러 충남에서 다른 국가들로 수출하고 있으나 이제껏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은 없었던 품목의 인도네시아 수출 개척 가능성도 높아짐
 - 해당 품목들의 인도네시아 수출관로 개척에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함 [표 12]

-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소 개소는 CEPA로 인한 한국-인도네시아 무역확대를 겨냥한 충남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음
 - 관세철폐의 직접적인 해당품목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성장과 발전 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내 기업과 수출 기업과의 연계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10] 2020년 충남의 양허 품목별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비중

HS코드		품목명	양허 유형	충남 전체		對인도네시아		충남 비중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플 라 스 틱 · 고 무 류	39013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즉시	486,784,188	2,992,960	9,392,639	-	1.93%	-
	3921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 중 기타	즉시	11,573,696	3,695,187	115,341	-	1.00%	-
	392049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중 기타	즉시	23,703,601	3,713,568	192,723	-	0.81%	-
	39219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	즉시	12,491,893	1,818,155	26,350	-	0.21%	-
	3918109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 바닥갈래 중 기타	즉시	209,606	1,182,181	5,429	-	2.60%	-
	4002709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디엔고무 (EPDM)	즉시	1,317,750	220,698	375	-	0.03%	-
철 강 제 품	7318159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중 기타	15년	3,402,846	3,390,412	1,340	339,975	0.04%	10.03%
양허 유형별 합계			즉시	536,080,734	13,622,749	9,732,857	-	1.82%	-
			15년	539,483,580	17,013,161	9,734,197	339,975	1.80%	2.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단위: US\$

〔표 11〕 한-인니 CEPA 추가 양허 내용 및 총남 수출현황

HS코드	품목명	양허 유형	2020		2019		2018		2017		2016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39013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 합체	즉시	486,784,188	2,992,960	463,270,196	2,711,565	501,916,392	2,336,056	521,253,835	2,479,640	421,236,941	5,591,700
3921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 트립 중 기타	즉시	11,573,696	3,695,187	8,910,247	3,071,788	10,092,433	3,059,873	14,263,809	3,524,212	12,352,819	2,840,569
392049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중 기타	즉시	23,703,601	3,713,568	23,928,920	3,961,769	24,777,504	2,836,840	25,407,709	2,463,408	24,884,490	2,633,363
392190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 트립 중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즉시	3,998,199	1,486,658	3,136,698	1,247,994	3,097,051	1,166,285	2,036,097	1,022,218	1,450,472	876,130
39219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 트립	즉시	12,491,893	1,818,155	14,989,126	3,358,599	18,266,677	2,451,634	22,450,936	2,428,792	21,035,508	2,750,449
3918109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 바닥갈 개 중 기타	즉시	209,606	1,182,181	29,926	484,707	71,417	181,816	776,711	126,020	449,168	57,091
39211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필름·박·스트립 중 기타	즉시	1,734,428	137,462	810,753	9,041	1,445,799	59	15,314,910	3,846	15,593,583	95,406
39072090	그 밖의 폴리에테르	15년	4,284,619	4,394,691	5,163,266	8,415,672	7,495,782	7,956,966	10,653,832	13,346,998	10,951,801	8,808,456
40027090	에틸렌-프로필렌-비공 액디엔고무(EPDM)	즉시	1,317,750	220,698	1,335,388	754,722	1,564,240	722,163	1,838,287	1,131,627	2,751,920	1,700,73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단위: US\$

〔표 11〕 한-인니 CEPA 추가 양허 내용 및 총남 수출현황

HS코드	품목명	양허 유형	2020		2019		2018		2017		2016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73071900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 구류 중 기타	5년	692,234	1,201,887	922,211	1,499,348	616,875	1,419,800	25,035	1,343,405	9,262	1,074,284
73053110	세로방향으로 용접한 강관 중 스테인리스 강 관	10년	17,147,464	-	23,290,448	-	2,111,023	-	9,181,499	-	6,559,725	-
72083990	열연강판 중 기타	10년	-	249,163,411	-	298,819,784	-	330,744,191	2,428,879	373,308,693	1,027,554	305,602,276
7318159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중 기타	15년	3,402,846	3,390,412	2,205,441	2,498,280	1,762,134	4,001,682	1,708,500	3,994,980	2,608,324	3,254,209
7318151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중 기타	15년	1,205,107	1,741,792	848,726	759,228	1,473,568	1,122,733	731,162	1,324,502	964,760	965,797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단위: US\$

[표 12]. 2020년 충남의 양허 품목별 수·출입 비중

HS코드		품목명	한국 전체		충남 전체		충남 비중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플라 스 틱 · 고 무 류	39013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995,305,794	14,253,758	486,784,188	2,992,960	48.91%	21.00%
	3921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 중 기타	222,094,900	259,940,620	11,573,696	3,695,187	5.21%	1.42%
	392049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중 기타	138,215,949	36,164,242	23,703,601	3,713,568	17.15%	10.27%
	392190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 중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79,520,908	55,810,263	3,998,199	1,486,658	5.03%	2.66%
	39219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	156,562,880	41,710,784	12,491,893	1,818,155	7.98%	4.36%
	3918109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 바닥 깔개 중 기타	7,319,248	19,487,679	209,606	1,182,181	2.86%	6.07%
	39211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필름·박·스트립 중 기타	24,292,959	26,958,565	1,734,428	137,462	7.14%	0.51%
	39072090	그 밖의 폴리에테르	138,591,783	115,619,228	4,284,619	4,394,691	3.09%	3.80%
	4002709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디엔고무(EPDM)	221,966,223	32,739,342	1,317,750	220,698	0.59%	0.67%
철 강 제 품	73071900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 중 기타	17,709,782	58,712,298	692,234	1,201,887	3.91%	2.05%
	73053110	세로방향으로 용접한 강관 중 스테인리스 강관	212,200,736	43	17,147,464	-	8.08%	0.00%
	72083990	열연강판 중 기타	1,125,705,188	730,588,573	-	249,163,411	0.00%	34.10%
	7318159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중 기타	50,862,981	70,241,642	3,402,846	3,390,412	6.69%	4.83%
	7318151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중 기타	45,978,546	17,411,844	1,205,107	1,741,792	2.6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단위: US\$

5. 종합 및 시사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인 발전 잠재력이 크고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
 - 코로나19로 주춤하고 있기는 하나, 빠르고 안정적인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또한 최근 우리 정부와 기업들과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
 - 또한 대기업과 대기업의 하청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중
- 그러나 여러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안정성이 아직 크지 않은 편이며 이와 관련된 한계 역시 큰 편
 - 창업, 통관행정(116), 건축인허가, 재산권등록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해외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함에 있어 상당한 진입장벽 존재
- 충남의 입장에서 보면,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있어 함의가 큰 소비재 시장, 즉 3차 산업과 관련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충남과의 교역량 역시 미미한 수준
 - 인도네시아의 소비시장 잠재력이 큰 것은 분명하나, 충남과 구체적으로 경제적 접점을 찾기에는 아직 한계 큰 편
- 그러나 한-인도네시아 CEPA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을 고려할 때 기존 충남의 인도네시아 수출제품 이외에도 새롭게 수출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개척할 필요성이 높아짐
 - CEPA체결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이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선제적 지원정책 마련 필요

1. 프로젝트 또는 준위탁사무소형 인도네시아 사무소 설립

- 시의성과 전략성을 검토해 봤을 때, 시의성은 크나 충남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
- 지방정부의 해외사무소 유형 중, 설립 및 매몰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직접사무소 형태의 사무소 개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 상대적으로 저렴한 설립 및 운영비용을 들이면서도 미래 시장의 탐색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한 프로젝트형, 준위탁사무소형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적절할 것이며, 향후 인도네시아가 충남의 대표적인 전략거점이 되었을 때 직접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이 바람직
- 코로나19로 많은 지방정부 해외사무소가 통상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 상황에서 직접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도에 큰 부담으로 작용 가능

〔표 13〕 해외사무소 조직유형과 운영방안

구분	프로젝트형	준위탁사무소형	위탁사무소	직접사무소
내용	-미래시장 선제진출 -업무위탁방식 활용 -마케팅 중심 -운영비만 지원 -커미션 계약 허용 -경제진흥원 관리방식	-위탁자 선정 곤란시 활용 -성과우수 프로젝트에 적용 -업무위탁방식 활용 -마케팅 중심 -인건비, 운영비 지원 -경제진흥원 관리방식	-중요시장에 활용 -업무위탁방식 -수출플랫폼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지원 -경제진흥원 관리방식	-핵심시장에 활용 -경제진흥원 관리방식 -수출플랫폼 -교류협력 플랫폼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차량 지원

출처 :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사례(2019) 참고 재구성

2. 타 지방정부와의 공동사무소 설립

- 대구, 경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사무소를 공동으로 설립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는 공동 사무소 형태는 특히 진출지역의 잠재력 가치를 크게 평가하고, 시의성을 중시할 때 활용 가능성 큰 편
- 충남도 역시 타 지방정부와 공동사무소를 건립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신규 지방정부와의 공동 설립, 기 진출 지방정부와의 공동 설립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할 필요
-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활동해온 바 있으며, 최근 타 시도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경남도와의 협력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

3. KOTRA 원루프 시스템(one-roof system) 활용

- KOTRA 원루프 시스템은 KOTRA, 지방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정보와 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하는 것을 의미
- 지방정부별로 차별화된 시스템 마련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이 존재하나⁴⁾, 우선적으로 KOTRA 원루프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4) 머니투데이, '[국감현장]코트라 "현재 '원루프' 시스템 불만족...예산 절감시나리오 검토', 2019.10.10.

참고 문헌

- 강내영·김건우, 2018, '글로벌 생산분업구조의 변화 및 시사점', 트레이드 포커스(2018제53호), 한국무역협회
- 경기도청, 2018, 경기도 통상전략 및 수출지원사업, 경기도청
- 신현수, 2019, 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iKIET 산업경제이슈(2019.5.13), 산업연구원
- 코트라, 2016,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 동향, KOTRA산업통상자원부, 2019
- 코트라, 2019, 2019 국별 진출전략-동남아·대양주, kotra
- 코트라, 2021, 2021 국별 진출전략-인도네시아, kotra
- 서용원 외, 2019, 공급사슬관리, 생능출판사
- 한국무역협회, 2021, 2020년 대전세종충남 수출입 동향,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홍원표, 2019, 신남방정책에 대응한 충남 공공부문의 역할, 한국상무학회2019하계세미나(2019.6.21), 한국상무학회
- 홍원표, 2018, 한반도신경제구상에 대한 충남의 남북경협 전략, 충남연구원
- worldbank, 2021a, Doing Business 2020: East Asia & Pacific Region, worldbank
- worldbank, 2021b, Doing Business 2020: Indonesia, worldbank

인터넷 사이트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http://nsp.go.kr/main.do>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수출입은행: <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
- KOTRA 해외시장뉴스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8888>